

우리의 명절과 기념일

'6.1 국제아동절'의 유래와 의의

- 신기덕 -

우리 나라에서는 1931년에 4월 4일을 중국 아동절로 정한 적이 있다. 건국후 중앙인민정부 정부원에서는 1949년 12월 23일, 중국의 아동절을 국제아동절 6월 1일과 통일하도록 규정하였다. 1925년 국제아동행복추진회는 아동절 제정을 제안했고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자국 아동절 제정에 적극 호응해 영국은 매년 7월 14일을 아동절로 정하고 미국에서는 5월 1일을 아동절로 규정하였다.

일본의 어린이날은 남녀 어린이날로 나뉘는데 남자 어린이날은 5월 5일이고 여자 어린이날은 3월 3일이다. 1942년 6월, 독일 파시스트는 체스코 리디체 마을의 16세 이상 남성 시민권자 140여명과 영아 전원을 총살하고 여성과 어린이 90명을 강제수용소로 끌고 갔다. 마을의 집과 건물은 모두 불에 탔다. 멸절하던 마을 하나가 이렇게 독일 파시스트에 의해 파괴되었다.

국제아동절은 1942년 6월 10일 이 리디체 참사와 전세계 모든 전쟁중에 사망한 어린이들을 기리는 동시에 아동학살과 독극물에 대한 반대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1949년 11월 국제민주여성연맹은 모스크바에서 리사회를 열고 매년 6월 1일을 국제아동절로 제정하였다.

리사회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대표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각국의 반동파들이 어린이를 학살하고 독살한 범죄를 폭로하였다. 6.1 아동절은 세계 각국에서 아동의 생존권, 보건권, 교육권, 양육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생활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와 아동독해를 반대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다 6.1 아동절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다.

아동절의 기원은 19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어린이 권익 옹호자인 에바 폰 몬테스타테히트가 스위리에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제1차 국제아동연맹총회에서는 어린이 권익에 대한 관심을 옹호하고 교육, 보건,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동절은 중요한 명절로 어린이의 권리를 기리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및 보호를 포함한 어린이의 권리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절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어린이에게 평등한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가 정당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절은 어린이 교육을 강조하는 날이기도 하고 체육대회, 문예 공연, 오락유희 등 다양한 어린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능을 뽐내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고무격려하는 날이기도 하다. 아동절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어린 시절의 상징이기도 하며 아이들은 다양한 어린이 행사에 참여하여 선물과 사랑을 받고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느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연길 · 훈춘 통소인들 교류와 학습으로 함께 성장

5월 27일 오전, 연길시문화관통소대에서는 훈춘시문화관통소대를 초청하여 '아름다운 중화 매력적인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조선족통소 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요청에 의해 연길에 온 훈춘시 문화관통소대의 40여명 대원들은 통소대 지휘인 리덕수의 인솔하에 집체 연주, 독주, 가야금중주 등 7곡의 통소 연주를 선보였고 연길시문화관통소대와 민들레통소대에서도 9곡의 통소 연주를 보여주면서 1시간 반가량의 학습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연길시문화관통소대 대장인 조동수는 "공동한 통소 사랑과 흥취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존재하는 부족점을 찾았다."면서 "향후 우리 민족의 전통 악기인 통소 연주의 한자원 높은 발전과 전승을 위해 매우 의의 있는 모임을 조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훈춘시문화관통소대는 연변에서 소문난 통소연주팀이다. 조동수는 훈춘시문화관통소대의 20명 넘는 통소연



주인들이 부는 통소소리가 한사람이 부는 것처럼 일치하고 흐트러짐이 없었다면서 높은 연주 실력에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특히 연길과 훈춘시의 통소인들은 모두 저명한 통소 예인 김철호선생의 제자들이며 상호 교류하고 영향주면서 수준을 제고하려는 데서 이번 활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수는 이번 교류 행사가 연길과 훈춘 두 지역 통소인들이

손잡고 부단히 통소의 매력을 발굴하고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승시켜나가는 데 적극적인 작용이 있기를 바랐다.

한편, 이번 통소 교류 행사를 시작으로 훈춘과 연길 두 지역 통소인들은 해마다 봄, 가을 한차례씩 연길과 훈춘에서 정기적인 통소 교류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안상근기자



연변 고중부 축구팀, 주말마다 치열한 각축전

사진은 5월 25일, 연변 1중 운동장에서 진행된 고중 주말 축구 리그전 연변 1중 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청소년축구팀 경기 장면이다. 5월 18일에 시작된 2024년 연변 조선족자치주 제1회 고중 주말 축

구 리그전에는 연변체육운동학교, 연변 1중, 연변 2중, 연길시 2중, 훈춘시 1중 등 9개 축구팀이 참가,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연변 1중, 연길시 2중,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

운 등 3개 경기장에서 번갈아 1라운드씩 단순회전 형식으로 경기를 진행한다. 9개 팀이 총 9라운드, 36경기를 치러 승점에 따라 최종 순위를 매긴다.

/ 김파기자

전망대

초와니를 묶어두고 강팀에 강한 전술로 압박해야

6월 1일 오후 3시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 중심체육장에서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이하 '광서평과하료')과 2024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 1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에 슈퍼리그 진출을 목표로 내세웠다가 후반 들어 경기력이 떨어지면서 4위로 마감한 광서평과하료는 올해에도 슈퍼리그 진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재 성적은 5승 4무 2패 19점으로 2위 팀과 5점 차이로 5위에 머물러있다. 썩 좋지 않은 순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광서평과하료에 대해 잘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에 12라운드까지 불패의 기록을 세우면서 1위를 달린 바 있는 이 팀은 올해에 거금을 들여 초와니(37번, 현재 6골), 뽀우(10번), 허월(7번) 등 용병과 슈퍼리그와 갑급리그에서 뛰던 국내 선수 15명을 새로 영입하고 에스빠나적 감독 자부리를 감독으로 임명, 팀의 실력을 한층 끌어올려 슈퍼리그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4월 2일 경기 성적 부진과 압력으로 4라운드 경기를 지휘한 자부리 감독진이 사퇴하고 대신 왕소가 대리감독을 맡고 지금까지 팀을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28일, 중국축구 갑급리그는 공식계정을 통해 4월분 최우수선수에게 초와니, 최우수감독에 왕소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4라운드 경기에서 3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중 운남옥곤을 홈장에서 1:0으로 제압한 경기에서 초와니와 뽀우의 배합은 시종 운남옥



▲ 5월 25일에 진행된 강서러산팀과의 경기에서 연변룡정팀 로난선수가 슛을 날리고 있다. / 김파기자

곤의 후방선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34분경 초와니가 유일한 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왕소 대리감독은 수상소감에서 "감독은 학습을 떠날 수 없다. 매일마다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를 충실히 한다."고 하면서 감독도 선수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광서평과하료의 5월분 경기 성적은 1승 2무 1패로 썩 리상적이 되지 못했다. 지난 제 11라운드 경기에서 3:4로 광주팀에 홈장패를 당한 것이 좋은 실례이다. 출전 선수 평균 연령이 21.8세인 광주팀에 비해 27.6세인 광서평과하료가 충분한 준비가 따라가지 못해 광주의 속도와 절주에 밀렸다는 분석이다.

하여튼 운남옥곤에 1:5 참패를 당하고 강서러산에 2:1 홈장승을 간신히

히 얻어낸 연변팀에 있어서 광서평과하료는 막강한 실력을 가진 아름다운 적수가 아닐 수 없다. 연변팀이 최근의 적수들이었던 룡녕철인, 흑룡강빙성, 강서러산과 같은 약팀과 사용하던 전술체계로는 어렵고 없는 상태이다.

《손자병법》에 "남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다. 연변팀의 감독진과 선수들이 일심단결하여 광서평과하료를 잘 연구하고 그들의 공격로선과 공격선수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경기에서 미리미리 차단하는 동시에 시종 패속 반격, 짧고 빠른 패스로 강팀에 강한 연변 특유의 전면방어, 전면진공의 전술을 구축하고 상대의 진영을 중앙 부근에서부터 강력히 압박한다면 승점을 쟁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김봉길 감독 "올 시즌 연승을 위해 잘 준비하겠다"

6월 1일 오후 3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2라운드 연변룡정팀 대 광서평과하료국정팀 경기가 연길시전민건강 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지난 홈경기에서 꺾여팀을 간신히 이긴 연변룡정팀에 있어서 현재 5승 4무 2패 19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

5월 31일 오전에 있는 경기전 기자회견에 연변룡정팀 김봉길 감독과 리룡선수가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리룡선수는 "우리는 감독의 배치에 따라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를 잘했다. 광서팀은 강팀이

지만 우리는 꼭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길 감독은 "우리는 올 시즌 지금까지 연승이 없는데 매일 홈장 연승을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보선수의 부상 상황에 대해 "이보선수는 어제까지 훈련을 못했다. 부상이 좀 심각하네.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서 래일에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일 연변룡정팀의 홈장 경기와 함께 현장에서 '6.1' 국제아동절을 맞으면서 '사랑 듬뿍, 따뜻한 동행(汇聚爱心, 温暖童行)' 애심주제 활동도 펼쳐지게 된다. / 김파기자



CCTV '살면서 꼭 가 봐야 할 100 곳' — 연길편 첫 방송!

새로운 예능, 마음으로 출발! 5월 26일, '살면서 꼭 가 봐야 할 100 곳' — 연길편이 CCTV 예능채널(CCTV-3)에서 첫 방송되면서 한차례 '간다고 하면 가는' 내 마음 따라 떠나는 여행을 시작, CCTV 문예, 동영상(央视频), 텐센트 동영상, 비리비리, 아이치이에서 동시에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니저마יתי, 월랑누나, 양범, 왕빙빙 등 CCTV에서 제일 우수한 사회자들과 서포도, 무대정, 룽호 등 올림픽 명장, 인기 스타들이 모였다.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경치, 미식, 문화, 생활을 원점으로 하여 배낭여행의 시작, 리얼리티 쇼(真人秀)의 형식으로 각지의 풍경들을 발굴하고 현지 무형문화유산 항목을 체험하며 지방의 풍토와 인정을 느끼고 려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생활을 깨닫고 자아를 찾으면서 독특한 도시 기호로 관중들에게 각지의 문화 매력을 전면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 김파기자

